

보령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운영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2020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21일부터 5일간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고 25일 폐회했다.

회기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보령댐 피해 최소화 위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홍기, 박남숙, 한동인, 김충호, 최용식, 김정훈 의원이 선임됐다.

2건의 결의안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김홍기 의원은 '미안마 군부 루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박상모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에는 위원회별로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절차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3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에 이어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금순 의장은 "결산 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돌입

심사위원회 심사 마치고 4개분야 주제로 연구활동 추진...시정발전 견인 기대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정책개발 연구활동인 의원연구회를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

의회에서는 15일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원들이 구성한 4개 분야의 연구회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회는 총 4개 연구회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개선 연구회(최주경, 박상모, 김충호),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회(한동인,



관승현, 최용식, 조성철) ▲축산 악취 저감방안 연구회(김홍기, 관승현, 문석주), ▲체육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방안 연구회(박금순, 박남숙, 김정훈)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현장방문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